Eugene's FICC Update





Fixed Income 김지나 02)368-6149 i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 02)368-6176 i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 02)368-6177 dbwogur170@ eugenefn.com

Fixed Income (단위: %,bp, 틱)							
		11/26일	1D	1W	YTD		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773%	0.0	-11.6	-38,1		
	한국 국고채 10년물	2.903%	-1.7	-13,3	-28.0		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13.0	14.7	14.7	2.9		
	3년 국채 선물(KTB)	106.32	0.0	35.0	90		
	10년 국채선물(LKTB)	118.04	14.0	125.0	254		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257%	-1.6	-2.6	0.7		
	미국채 10년물	4.306%	3.1	-9.1	42.7		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4.9	0.3	11.5	-37.1		
	독일국채 10년물	2.186%	-2.1	-15.1	18.2		
	호주국채 10년물	4.445%	-4.1	-12.0	49.0		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중장기물 중심 강세 마감
- 간밤 미국채 분위기 반영하며 강세 출발. 베센트가 미 재무장관에 지명된 영향이 이어짐. 우호적 금통위 기대 및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도 지속
- 3년 금리, 장 중 2.75% 하회하였으나 레벨부담에 추가 강세 제한. 트럼프 관세 관련 발언에 아시아장 미국채 금리가 반등한 여파로 강세폭 축소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혼조세 마감
- 트럼프, 취임 첫날 중국/캐나다/멕시코에 고관세율 부과 할 것이라 경고. 인플레 우려 부상하며 전구간 금리 반 등하였으나 5년물 입찰 호조로 폭은 제한
- 11월 FOMC 회의록, 점진적 금리 인하 강조하였지만 어느정도 선반영된만큼 시장 영향은 미미했음
- 이스라엘 안보 내각, 헤즈볼라와의 휴전안 승인하여 국 제유가는 이틀째 하향안정 이어짐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

FX & Commodity (단위						
		11/26일	1D	1W	YTD	
흰율	원/달러	1,398.20	-0.3%	0.5%	8.6%	
	달러지수	106.95	0.0%	0.7%	5.6%	
	달러/유로	1.048	-0.1%	-1.1%	-5.1%	
	위안/달러(역외)	7.26	0.2%	0.3%	1.9%	
	엔/달러	153.06	-0.7%	-1.0%	8.7%	
	달러/파운드	1.256	-0.1%	-0.9%	-1.3%	
	헤알/달러	5.81	0.0%	0.7%	19.7%	
상품	WII 근월물(\$)	68.77	-0.2%	-0.9%	-4.0%	
	금 현물(\$)	2,631.75	0.2%	-0.1%	27.6%	
	구리 3개월물(\$)	8,962.50	-0.9%	-1.4%	4.7%	

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-4.00원 하락한 1,398.2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396.10원 마감.
- 간밤 온건파 베센트의 재무장관 지명 효과로 달러 강세 는 주춤. 그러나 개장 전 트럼프가 중국/멕시코/캐나다 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언급하면서 달러-원은 상승 출발.
- 보호주의 우려 재확산에 장 초반 1,407원 선까지 급등 했으나, 이후 네고 물량 속 하락 전환.
- 장중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의 외환 스왑 규모 증액 소식이 나오면서 달러-원 하락 압력 확대.

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미국 관세 우려와 FOMC 의사록을 소화 하며 소폭 강세.
- 전일 아시아 강 개장을 앞두고 트럼프의 관세 언급이 나오면서 달러는 강세를 보였으나 이후 점진적 하락.
- 미국장 개장 이후 달러는 재차 강세를 보였으나, FOMC 의사록 소화하며 상승폭 축소. 일부 위원들이 금리 인하의 일시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전반적으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가는 데 동의하면서 12월 인하기대는 상승.
- 1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111.7로 2개월 연속 상승. 노동시장에 대한 센티먼트도 2개월 연속 반등.
- 금일 미국 PCE물가 발표 예정